

소비쿠폰 사용 순차적 재개...외식업계, 배달경쟁 더 뜨거워진다

정부 내년 소비쿠폰 예산 2400억 책정...성탄절 전후 포장·배달 사용가능 햄버거·피자·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와 배달 강화한 뷔페업체 등 수혜 예상 “코로나 진정시까지 쿠폰 사용 기간 늘리고 핀셋규제 강화” 주장 제기돼

외식업계의 포장·배달 경쟁이 올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해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성탄절 전후부터 비대면 사용을 전제로 소비쿠폰 사용을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성민 의원이 각 부처에서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책정한 소비쿠폰의 전체 예산 대비 실제 사용액은 지난 7일 기준으로 53.7%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식과 농수산물 등 8대 분야에서 예산 총 1802억원을 들여 소비쿠폰을 배포했는데 900억원 정도만 사용된 셈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소비쿠폰 관련 예산을 2400억원으로 책정해 올해 성탄절 전후부터 배달·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 사용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600억원 상향했다.

외식업계의 경우 소비쿠폰 정책 재

개가 실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기는 분위기다.

1차적인 수혜는 배달·포장 제품 판매가 가능한 외식업체들이 입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배달 음식으로 대표되는 햄버거와 치킨, 피자를 주력 제품으로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소비쿠폰 정책 재개에 따른 연말 특수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부 업체는 배달 전문 매장을 선보이기도 했다. 배달·포장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할인 이벤트를 적극 전개하고 있다.

맘스터치는 코로나19 이후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뉴노멀 매장’을 서울 강남에 선보였다. 뉴노멀 매장 내부는 주문 고객, 취식 고객, 포장 및 배달 고객 동선을 분리했다.

매장 내부에는 테이크아웃 고객 대기 공간 및 취식공간을 마련했다.

앱과 전화로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나 배달라이더들은 매장에 들어올 필요없이 픽업부스를 통해 매장 밖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제품을 받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촌에프앤비는 이달 27일까지 요가오 2000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교촌리얼후라이드’ 2종과 ‘교촌리얼

후라이드2종+칠리포테이토’, 순살 전 메뉴에 대해 적용된다.

버거킹은 오는 27일까지 스테디셀러 버거 2개를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믹스앤매치’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프로모션 대상 메뉴는 ‘통새우와퍼주니어’, ‘치즈와퍼주니어’, ‘몽키치버거’ 3종이다.

특히 최근 배달 서비스를 강화한 CJ푸드빌, 신세계푸드, 이랜드이츠애슬리 등 외식업체의 경우 연말을 기점으로 코로나 특수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CJ푸드빌은 올해 연말 집에서 가족, 지인들과 함께하는 홈파티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겨냥해 지난 8월 론칭한 배달 전용 브랜드 ‘빽스 암 딜리버리’ 서비스를 전국 빽스 매장으로 확대했다.

서초, 강남 지역 위주로 첫 선을 보인 이후 높은 고객 호응을 확인하고 10월 서비스 지역을 서울·경기 15개 지역구로 확대한 바 있다.

딜리버리 서비스를 전국 37개 매장으로 확대 운영한다.

신세계푸드가 운영하는 프리미엄 씨푸드 뷔페 레스토랑 ‘보노보노’도 배달 서비스를 도입했다.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의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한 21일 서울 대학로 일대 거리가 한산하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 워크숍, 게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일체 금지된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인 성격에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 허용이 유지된다.

보노보노가 선보인 배달전용 메뉴는 신선함과 조리 수준을 대폭 높인 스페셜 초밥세트 4종, 제철 해산물 4종 등 20여종이다.

애슬리는 기존 13개 매장에서 진행하던 딜리버리 서비스를 전국 43개 매장으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총 5개의 세트로 구성된 홈뷔페 신메뉴는 2인용 시그니처 컵세트, 4인용 홈뷔페 패밀리세트, 5인용 홈뷔페 프리미엄세트 등 인원수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즐길 수 있다.

이외에도 배달 서비스 정책을 적극

운영하고 있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던킨, 베스킨라빈스, 에그슬럿, 라그릴리아 등과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에 이어 쿠팡이츠에 입점한 투레주르도 수혜가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쿠폰 사용 재개는 코로나 방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감안할 수 있는 정부의 깊은 고심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쿠폰이 다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정책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정도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와함께 종교활동 비대면 강화 등 물리적인 전파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핀셋 규제 방안으로 보완될 필요성이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1차 소비쿠폰이 책정된 예산대비 절반 수준밖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기간이 짧았던 측면도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백신 공급 이후 진정될때까지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메가마트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3~29일 신선식품,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1000여 가지 인기 상품을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메가 패밀리 쇼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은 메가마트 부산 동래점에서 직원들이 ‘메가 패밀리 쇼핑’ 행사를 홍보하고 있는 모습.

노조 ‘성탄파업’에 이케아, 홈퍼니싱 최대 70% 할인

이케아 코리아는 24일부터 홈퍼니싱 제품 최대 7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케아지회는 이날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케아 코리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랜선 홈파티 분위기를 한층 완성도 있게 꾸며줄 조명과 각종 텍스타일, 블루투스 스피커, 주방용품 등 다양한 홈퍼니싱 제품 200여종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주요 제품은 ▲세르나(SMILA

STJÄRN) 벽 부착등 ▲사랄레나(SARALENA) 쿠션 ▲도프트민네(DOFTMINNE) 트레이 ▲에네비(ENEBY) 휴대용 블루투스스피커 등이다.

할인행사는 이케아 전 매장(광명점, 고양점, 기흥점, 동부산점)과 이케아 코리아 공식 온라인몰에서 진행된다. 할인 적용 제품은 매장 온라인 별로 상이하다. 자세한 내용은 24일부터 이케아 코리아 공식 온라인몰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시기에 맞춰 이케아지회는 파



업을 예고했다. 이케아지회는 탄력근로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4일부터 27일까지 연가투쟁을 통한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화물차 심야할인도

상승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3~6개월 제한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이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기간이 2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지난 2017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할인대상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등이며 해당 차량은 통행료를 50% 할인받게 된다.

올해로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일몰기간도 2년 연장된다.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를 통해 사업용 화물차 건설기계는 심야시간(21~6시)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 30~50%를 할인받게 된다.

상승 과적·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심야할인이 제외된다.

그간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은 낙하물 사고, 도로 파손 등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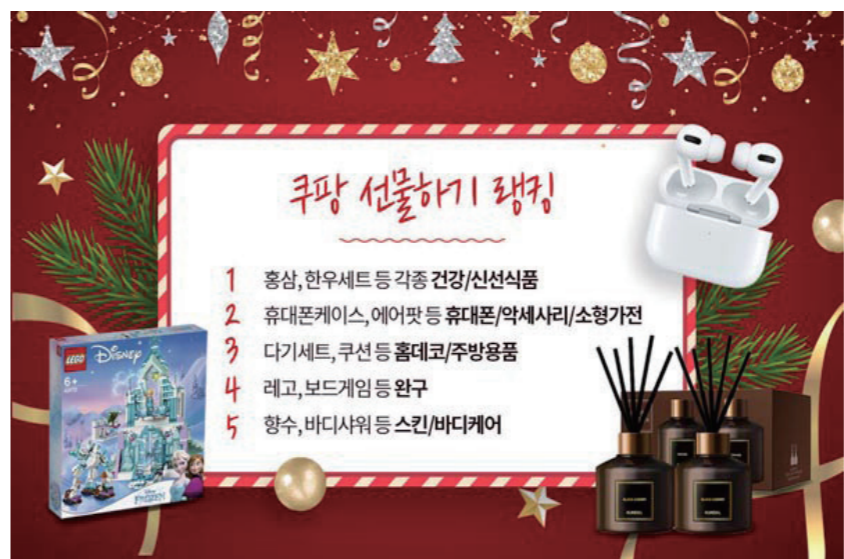
유발해,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과적 또는 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한다.

국토부 주현중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선물하기도 로켓배송...홍삼·한우 등 제일 잘 팔려

오전 주문 시 당일배송도...로켓배송 특장점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면서 쇼핑은 물론이고 선물 역시 온라인을 활용하는 트렌드가 강화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선물 기능이 메신저를 이용한 커피쿠폰이나 생일 꽃다발 등으로 한정적으로 이용됐다면, 최근에는 명절 선물이나 결혼식 답례품, 온라인 집들이 선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쿠팡은 22일 자사 뉴스를 웹사이트를 통해 선물하기 인기 카테고리 랭킹을 공개했다. 지난 4월 론칭 이후 현재까지 가장 인기 있는 카테고리라는 홍삼, 영양제 등이 포함된 건강/신선식품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시기에 면역을 기르고 건강하게 만나자는 의미에서 이 같은 건강 식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추석 가족모임을 자제하며

선물로 마음을 대신한 사람들이 한우 세트 등 다양한 식품을 선택해 해당 카테고리의 인기가 높아진 측면도 있다. 그 외 집콕족들을 위한 홈데코 용품, 집밖을 나서기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완구 등이 선물하기로 높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쿠팡은 전했다.

쿠팡의 선물하기가 호응을 얻는 요인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인 로켓배송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익일 또는 당일 배송되는 로켓배송의 편리한 서비스가 쿠팡으로 수요가 몰리는 가장 큰 이유다. 선물하기 서비스에도 일부 상품의 경우 오전 10시 이전에 주문하면 당일, 오후 9시 이전 주문하면 익일 새벽 배송이 적용된다. 상품 셀렉션은 84만종에 달한다. 레고, 보드게임 등 각종 완구류에서 밀키트 홈파티 세트, 패션, 각종 소형가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을 포함한다.

쿠팡 관계자는 “향후 설치가전이나 설치기구 등 제품군도 선물하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받는 사람이 도착일을 지정하는 기능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희기자